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 데이터 개방·공유로 민간 연구활성화 기대

- 지난 1월 개통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 자동산출, 연구분석 등 지원할 수 있어,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민간 감염병 연구분석 활성화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월 10일 오전 8시부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앞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염병별 역학조사 정보를 연구 분석에 용이하도록 표준화하였으며, 그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전용 플랫폼을 금년도에 구축하였다.

오늘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 1월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가명정보*를 기반으로 민간에서도 감염병 정책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나 대체하는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이어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방역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무사히 개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질병청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연구 분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요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	책임자	팀 장	정우진 (043-719-7050)
	방역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제도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박종현 (043-719-7095)
			연구원	최혜정 (043-719-7063)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은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정부 ☎129 / www.e-gen.or.kr

□ **추진 배경**

- 코로나19에 대응하며 통계산출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외부 개방도 어려워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 구축 필요
- 통계는 자동으로 산출하고 가명정보* 기반 정책연구분석 활성화
*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나 대체하는 등 추가 정보 없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 **주요 추진 내용**

- **(정형보고서)** 감염병 감시 연보 등 반복적·주기적 산출이 필요한 전수감시 감염병 주요 통계에 대한 자동 산출 및 검색 기능
 - **(비정형분석)** 역학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분석 지원, 별도 BI 솔루션(MicroStrategy)을 도입하여 일부 통계정보 시각화 지원
 - **(외부개방)**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명처리 적정성 등 검토하고 승인된 연구를 대상으로 데이터 개방하여 민간 연구분석 활성화
- ⇒ (기대효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업무를 통해 효율성 제고 및 감염병 데이터를 외부 개방하여 민간 연구분석 활성화 도모

< 빅데이터 플랫폼 기대 효과 >

